

日本의 石油政策方向

□… 이 資料는 최근 日本의 石油基本問題研究会가 通產省資源에너지 …□
□… 序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日本의 80年代 석유정책방향에 관한 중간…□
□…보고이다. <編輯者註> …□

序 言

1. 國際管理의 강화와 그 評価 (긴급시 대책 포함)

- ①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動向
- ② 輸入억제
- ③ 긴급시 대책(準 危機對策포함)
- ④ 대화의 촉진

2. 石油需要의 展望

- ① 代替에너지의 가능성
- ② 소비절약의 진전
- ③ 需要의 破行
- ④ 需要伸張의 駁화
- ⑤ 종합적 정책의 전개

3. 消費地精製와 製品輸入

- ① 消費地精製主義의 定着
- ② 產油국의 下流部門에의 진출
- ③ 국제제품시장의 전망
- ④ 끼워 팔기 去來의 확대
- ⑤ 原油輸入과 製品輸入의 베스트 믹스
- ⑥ 產油국의 資本참가에의 対応

4. 調達시스템現況

- ① 調達ル트의 확대
- ② 对外經濟政策의 전개
- ③ GG의 利害得失
- ④ 이른바 「輸入权」의 의의
- ⑤ 日本型 調達루트
- ⑥ 메이저 루트의 保全

5. 石油企業의 機能과 体質

① 石油業法의 功過

- ② 量的 拡大期로부터 質的 充実期로
- ③ 経営環境의 정비
- ④ 原油格差문제

6. 技術, 設備, 立地를 둘러싼 課題

- ① 中間留分供給의 확대
- ② 重質油分解의 촉진
- ③ 原油改質
- ④ 新燃料油의 개발, 도입
- ⑤ 產油국에의 技術移転

7. 價格메커니즘의 役割

- ① 石油制品價格体系의 变遷
- ② 制品價格에 대한 視點
- ③ 價格메커니즘의 尊重
- ④ 中間留分對策
- ⑤ 프레임 워크의 整備

이러한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 검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國際管理의 강화와 그 評価

石油輸入목표의 설정에 관해서는 국제수지, 对OPEC교섭력, 국내대책의 진전등의 点에서 의의가 있다. 또 수입억제에 있어서도 石油課税의 인상이나 제품가격의 상승에 의한 수입억제가 아니라 省에너지 측면에서의 수입억제를 추진해야 한다.

短期的인 목표설정은 석유의 爭奪경쟁에 따른 회피할 수 있는 비상수단으로서 필요하다.

石油需要의 展望

85년에 日本의 石油輸入목표량은 하루 6 백30만 배럴이지만, 農林水產, 民需, 運輸, 산업부문등의 省에너지와 代替에너지의 도입으로 목표량의 인하는 가능하다.

電氣, LPG自動車의 보급으로 휘발유 수요의 억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느냐 하는 것이 省에너지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價格面에서 유리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重油의 공급과잉은 代替에너지도입의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省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消費地精製와 製品輸入

產油국은 석유의 가치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국에 위탁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국내에 정유공장의 전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행 처리능력의 약 75% (약 4백만배럴/日)가 80년대중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產油國의 움직임은 석유가치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自国에서 필요로 하는 中間留分의 확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래의 消費地精製主義라는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견지에서 이에 対処할 필요가 있다.

調達시스템 現況

商社에 의한 교섭력과 日本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조달시스템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경제협력에는 產油국의 요구에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국내산업에도 충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商社의活動力은 앞으로 충분히 상호이용되어야 한다.

메이저의 지위는 非아랍코로가 저하되고 있으나 石油전반에 걸쳐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評価될만하다.

日本시장에 대한 매력이 더 이상 악화될 경우 메이저의 日本철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저하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石油企業의 機能과 体質

石油業法은 손을 대지 않는다. 80년대의 政策에 反하는 내용으로改正될 경우, 필요 이상으로 統制色이 강화되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原油格差문제는 특히 非아랍코系에 있어서는 死活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만약 원유가격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中東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 다시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技術, 設備, 立地를 둘러싼 課題

產油국의 정유부문에 대한 진출은 나프타, 벙커 C油같은 기름을 끼워서 수출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省에너지와 소비절약으로 重油의 수요가 줄어 들고 있다. 또 日本의 석유수요구조는 輕質化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輸入原油는 重質化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中間留分의 공급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重質油의 분해설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인센티브의 부여, 中間留分 특히 灯油가격 억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價格매커니즘의 役割

日本의 價格체계는 美國과 공통적인 面이 있는데, 휘발유를 100으로 할 경우, 灯油, 輕油는 85 정도, 나프타와 벙커 C油는 75정도가 된다.

이에 대해 英国은 휘발유를 100으로 할 경우, 가정용 灯油(연료)는 115, 輕油는 108이며, 西獨은 輕油가 109, 灯油 105이며, 中間留分은 日本만큼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日本도 가격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中間留分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조코스트(重質油 분해설비에 대한 투자코스트등)가 높아지게 된다.*